



신축 앞둔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변수 여전

지방재정계획심의 조건부 의결로 2023년 개원 기대 부지변경 등에 사업비 112억 늘어 적정성 논란 우려
道 “사업 속도 내려면 불가피…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제주도정 민선 7기 공약인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신축 대상 부지를 옮기면서 백악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업비 적정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통해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은 의료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

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00병상 규모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오는 10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0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설계와 사업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2021년 8월쯤 착공한 후 202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 치매환자 1000명당 요양병원 수는 0곳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심의위원들이 부대 의견으로 사업비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변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지 확보 계획이 변경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은 당초 서귀포의료원 내 주차장(국유지)에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와 지역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부지 변경이 불가피했다.

결국 제주도는 의료원 인근 부지

7482㎡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곳은 사유지 2필지 3567㎡와 JDC 소유 부지 2939㎡ 등이 포함된 장소다.

이 때문에 부지 확보 비용(92억원)과 시설비 등 총 112억원이 추가돼 전체 사업비가 당초 182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증액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통 공시지가의 3.3배가 원칙이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4배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이 만들어지면 산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가 증대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돌봄 서비스’를 공공 영역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제주서도 시동

도, 운영방안 연구 등 착수
정부 계획에 내년 설립 목표
민간 운영자와 공감대 중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민간영역을 공공으로 흡수하는 만큼 운영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으며, 수행기간은 오는 12월까지 5개월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공급자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했다. 결국 나쁜 일자리 양산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화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

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했다.

올해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 4곳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고, 제주를 포함한 7곳이 내년 설립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광역자치단체 17곳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용역진은 제주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모델 수립과 설립 필요성, 설립 방향,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의 적정성과 공무원 정원계획도 분석한다.

제주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이용자들의 지역·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공공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민간 영역인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운영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공공으로 강제 흡수할 경우 영업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기득권 수용 범위 등은 용역을 통해 검토되겠지만 강제는 없을 것”이라며 “주민 설명회를 많이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도의회 5급 개방형직위 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공무원 채용을 위해 21일자로 공개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 공고한 개방형직위 공무원은 도의회 입법정책팀장과 법제지원팀장 직위로 5급 상당이며 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언론·법인·단체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5급 상당의 개방형직위 기준으로 학력·자격증·경력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응시 가능하다. 단, 입법정책팀장은 필수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9월 9일까지다. 오은지기자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정책연구실 주관으로 열린 ‘도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방안’ 수요좌담회에서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침체 제주, 지속가능 성장방식 찾아야”

어제 도의회 수요좌담회에서
마케팅 통한 수요 진작 등
중단기 활성화 방안 제시

제주지역 기반산업 침체 국면 전환을 위해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요 진작,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중단기 경제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21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

의회 정책연구실 주관으로 열린 ‘도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방안’ 수요좌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후식 박사(도의회 정책연구실)는 “경기실사지수 하강, 서비스업 생산활동 둔화 등 제주경제 위축세가 지속되고 내국인 관광객 둔화로 관광관련 산업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 약세로 건설업 등이 침체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전반에 걸쳐 과잉공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

단했다. 이어 “수요위축(과잉공급)으로 기업의 수익성 약화와 부채비율 상승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박사는 제주 지역의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제주방문객 확대 및 관광활성화 ▶제주 청정 농산물물의 브랜드화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한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강

화로 사업전환, 협동조합화 등 구조조정 노력 강화를 제안했다.

신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제주의 성장방식을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형개발사업 등 건설투자 중심의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사업고도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등 내연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서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에 대한 연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풍력 이익금 활용방안, 도민에 묻는다

도, 한달간 의견수렴 통해
공유화 기금사업 편성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사업 지역회원 방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공공자원의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0억 상당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공모는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등이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안 사항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2020년도 기금 사업으로 편성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공공자원의 바람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라며 “관련 사업 발굴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사립평안방보건의료재단(민간자격등록 제2014-3152)

자격과정 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 개설

과정명 : 한방약초와 발효효소 (민간자격등록)

자격증명 *한방약초활용관리지도사1급
*건강발효효소전문지도사1급

한방약초활용을 이용한 발효약,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 300여가지 식품을 이용한 건강발효효소 만드는 법과 한방다식 만들기, 꽃법제, 기혈진액효소만들기, 여성, 남성에게 좋은 효소만들기수업, 기존에 발효음료 만드는 방법과는 다른 첨가물을 이용한 건강하고 올바른 발효음료 만들기 수업이 이루어진다.

인원 20명 선착순 (등록비 30만원)
교육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

9월 3일(화) 부터 12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4시간)

■ 수강료할인

- 한라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 수강료의 20% 감면
- 계속 수강생 및 복수강좌 수강생 : 수강료의 20% 감면
- 보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수강료의 20% 감면
- 각급 학교 교사 및 기관단체 : 수강료의 20% 감면(단체 5명이상 등록시 추가 20%감면)
- 가족(부부, 형제자매 등) 등록 할인 : 수강료의 20% 감면
- 우리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재학생 자격인정 프로그램 : 수강료의 30% 감면
- 65세이상 경로우대자 : 수강료의 50% 감면

힐링한방보건의료재단
2년연속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수상

접수 담당자 010-6761-3474
평생교육원 064-741-7595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격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로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를 가능...

ⓧ 세금 부담
ⓧ 정비 부담
ⓧ 보험 부담
ⓧ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정비
보험
5년무제한
자금보증

국내최초 정액제 렌터카 |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 쇼 날 FRP 페 인 트 총 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별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